

碩士學位論文

일본어 「夕」에 관한 고찰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梁采烈

2003年 12月

# 일본어 「夕」에 관한 고찰

指導教授 金勝漢

梁采烈

이 論文을 文学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2月

梁采烈의 文学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12月

# A Study on *ta* in Japanese

Yang Chae-yeo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ung-h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3. 12.

<국문초록>

## 일본어 「夕」에 관한 고찰

梁采烈

济州大学校 大学院 日語日文学科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의 문말 술어에 접속한 「夕」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표현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夕」의 용례를 살펴보면, 「夕」의 의미와 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夕」의 용례를 통해 선행하는 술어에 따라 「夕」가 과거 이외에 어떤 의미와 용법을 갖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고찰의 방법으로서 서론에서는 「夕」와 관련된 문법 범주와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술어의 종류를 나누어 문말에서의 「夕」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 그 영역을 연체수식절까지 확대하였다.

문말에서 「夕」의 의미와 용법은 시제와 상, 서법의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말에서 시제의 「夕」는 정적 술어의 경우 과거 어느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지속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동적 술어의 경우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과거에 반복적으로 행하던 습관을 나타내었다. 상은 동적 술어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동작의 완료나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었다. 서법의 관점에서 보면 「夕」는 과거 사항의 실현을 가상한 용법, 확인의 용법, 기대의 실현의 용법, 명령의 용법, 현재의 감정 및 감각을 나타내는 용법 등이 있었

다.

연체수식절에서의 「夕」는 시제와 상의 측면은 나타나지만 서법의 측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제의 「夕」는 문말과 마찬가지로 정적술어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고 동적 술어는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었다. 상의 「夕」도 문말과 마찬가지로 동적 술어에서만 나타나며 동작의 완료나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었다.

연체수식절에서 「夕」에 시제와 상의 측면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은 문말에서의 「夕」와는 다른 용법이라고 하겠다.



# 목 차

국 문 초 록 .....	i
<b>I. 서 론 .....</b>	<b>1</b>
1.1 연구 목적 .....	1
1.2 「夕」와 관련된 문법범주 .....	2
1.3 선행연구 .....	3
<b>II. 본 론 .....</b>	<b>5</b>
2.1 술어의 종류 .....	5
2.2 문말에서의 「夕」의 의미와 용법 .....	6
2.2.1 술어의 종류와 시제 .....	6
2.2.1.1 정적 술어 .....	7
2.2.1.2 동적 술어 .....	11
2.2.2 술어의 종류와 상 .....	13
2.2.2.1 동적 술어 .....	14
2.2.2.2 상의 「夕」와 「テイル」와의 유사성 .....	17
2.2.3 서법의 「夕」 .....	18
2.3.3.1 실현에 대한 가상 .....	19
2.3.3.2 확인 .....	20



2.2.3.3 기대의 실현 .....	21
2.3.3.4 명령 .....	22
2.3.3.5 화자의 현재의 감정 및 감각 .....	23
2.3 연체수식절의 「ㅈ」의 의미와 용법 .....	25
2.3.1 술어의 종류와 시제 .....	26
2.3.1.1 정적 술어 .....	27
2.3.1.2 동적 술어 .....	28
2.3.2 술어의 종류와 상 .....	29
2.3.2.1 동적 술어 .....	29
2.3.3 단순한 상태 .....	32
<b>Ⅲ. 결 론</b> .....	34
참 고 문 헌 .....	36
Abstract .....	39



# I. 서론

## 1.1 연구 목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들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때문에 일본어의 모든 표현을 한국어에 일대일 대응시키려 한다. 일본어의 문말 술어에 접속한 「夕」의 경우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표현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夕」의 의미와 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 (1) 夏の早朝の風がさわやかだった。 (高1, p.2)  
(2) ふっと、信夫は寂しくなった。 (塩狩峠, p.48)  
(3) ちょっと、待った。 (高橋 1985 : 218)

(1)은 형용사에 「夕」가 접속하여 지나버린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는 동사에 「夕」가 접속하여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은 동사에 「夕」가 접속하여 명령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夕」에는 과거 표현 뿐 아니라 다른 의미와 용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夕」가 접속한 술어에 따라 어떤 의미와 용법을 갖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夕」와 관련된 문법 범주와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겠다. 본론에서는 술어의 종류를 나누어 단문 또는 주절말의 「夕」의

의미와 용법을 살피고 그 영역을 연체수식절까지 확대하여 「夕」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겠다.

「夕」의 의미와 용법을 고찰하기 위한 예는 주로 초·중·고교의 교과서와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에서 찾았고 적당한 예가 없는 경우는 참고 문헌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 1.2 「夕」와 관련된 문법범주

「夕」는 보통 시간과 관련된 표현으로 간주된다. 시간과 관련된 문법범주로는 ‘시제(Tense)’와 ‘상(Aspect)’이 있다.

‘시제’란 용언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먼저인가 동시인가 나중인가를 표현하는 문법범주이다.

‘상’이라는 용어는 슬라브 제어(諸語)<sup>1)</sup>에서 동사의 활용에 완료와 미완의 구별을 하기 위해 처음 쓰인 말이다. 일본어에서는 어떤 동작이나 변화가 일정시점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 즉 시작, 계속, 종결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

또한 「夕」는 시제, 상과 더불어 ‘서법(Mood)’과도 연관이 있다.

---

1) 三谷恵子(2001), 「ロシア語の『体』の研究史」 『「た」の言語学』, ひつじ書房, p.53.

現在のスラヴ諸語は, 歴史言語学の伝統的な音韻対応の分析に基づき, ロシア語, ウクライナ語, 베ラルー시語を合わせて東スラヴ語, 폴란드語, 체코語, 슬로ヴァ키아語, 솔부語, 카슈어브語を合わせて西스라ヴ語, 슬로베니아語, 세르비아/크로아치아/보스니아語, 마케도니아語, 불가리아語를南스라ヴ語とする. 스라ヴ諸語가各言語に分裂し始めたのは紀元5世紀以降と考えられ, 現代語でも基本的な文法構造や語彙に多くの共演点が見いだされる。

‘서법’이란 문의 내용에 관한 화자의 판단, 의지, 추측과 같은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형식을 말한다.<sup>2)</sup>

「タ」의 의미는 과거의 시제, 완료의 상, 과거에 바탕을 둔 인식의 서법 등의 여러 범주가 복합되어 있다.

### 1.3 선행연구

일본어를 서양 문법의 틀에 짜 맞추려고 했던 연구 초기에는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구분하여 「タ」를 ‘과거’로 보았다.

또한 「タ」는 문어(文語)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タリ」가 바뀐 형태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タ」가 완료 즉 동작이나 작용의 양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タ」의 완료설은松下大三郎에 의해 비롯되었다.<sup>3)</sup>

山田孝雄는 「タ」에 단순히 ‘과거’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는, 회상과 결정의 ‘서법’의 용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sup>4)</sup>

寺村(1984)는 三上の 「タ」의 기능이 다의적이라는 견해<sup>5)</sup>를 바탕으로 하여 「ル」<sup>6)</sup>와 「タ」의 대립의 본질은 시제라 간주하고,

---

2) 益岡・田窪(1992), 『基礎日本語文法一改訂版一』, くろしお出版, p.117.

3) 井上和子 編(1989), 『日本文法小辞典』, 大修館書店, p.169. 참조

4) 福田嘉一郎(2000), 「「タ」の研究史と問題点」 『言語』 (30-13), 明治書院, pp.33~34.

5) 三上章(1953), 『現代語法序説』, くろしお出版 復刊, pp.219~220.

タ와 루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一. 事実としての完了と未了

二. 心理的な完了と未了

三. 期待の有無

四. 想起と主張

五. 儀禮的な問いとただの問い

6) 「ル」는 형용사 어미 「イ」와 형용동사의 어미 「タ」와 명사술어를 만드는 판정사 「タ」와 동사의 어미 「ル」를 모두 대표한다.

어떤 종류의 술어인가, 문말과 종속절의 어디에 나타나는가, 서실적(叙實的) 용법인가 서상적(叙想的) 용법인가<sup>7)</sup>의 세가지 관점에서 의미와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高橋(1985)는 현대 일본어 동사는 상의 범주에서 완성상과 계속상으로 대립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두 형식은 시제에 의해 비과거형과 과거형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문말의 「タ」는 완성상과 과거의 의미를 동시에 지녔다고 보고 있다.<sup>8)</sup>

工藤(1995)는 奥田의 아래의 표와 같은 주장을 ‘기본 상·시제 체계’라 불렀다.

〈표1〉 기본 상·시제 체계

	완성상	계속상
비과거	スル	シテイル
과거	シタ	シテイタ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タ」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 7)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p.78.  
 서실적(叙實的)용법이란 사실에 밀착하여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서상적(叙想的)용법이란 사실을 화자의 어떤 특별한 심리상태로 보고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 8) 高橋太郎(1985),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国立国語研究所報告82), 秀英出版, pp.33~35.

## Ⅱ. 본 론

### 2.1 술어의 종류

「夕」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술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행하는 술어의 성격에 따라 「夕」의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술어는 크게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술어를 동적(動的) 술어,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를 정적(靜的) 술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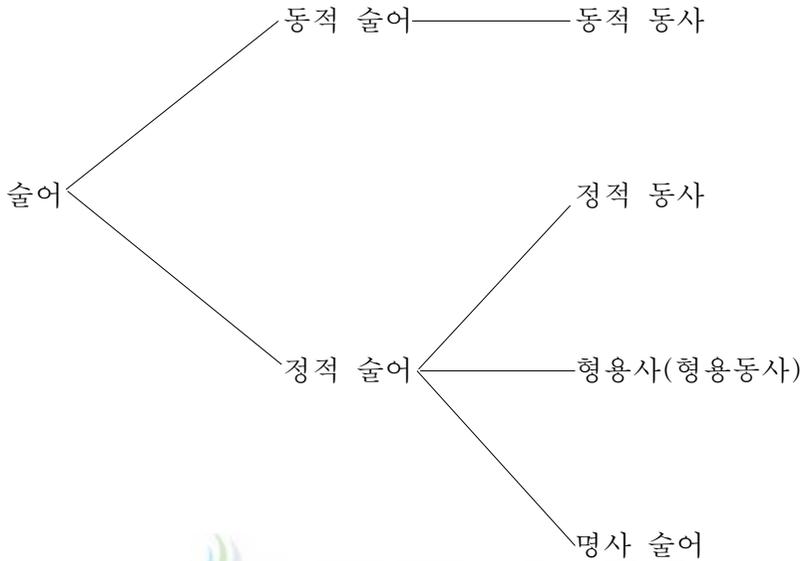
일본어에서 문 의 술어를 이루는 것은 동사, 형용사, 명사에 「夕(である)」가 접속한 형태인 명사술어 등이다.

동사는 동작이나 움직임, 변화 등의 동적인 사항을 주로 나타낸다. 그러나 동사 중에도 동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 존재, 특성, 관계 등의 정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다. 흔히 전자를 동적(動的) 동사라 하고 후자를 정적(靜的) 동사라 한다.

한편, 형용사와 명사 술어는 정적 동사처럼 정적인 사항을 나타낸다.

위를 요약하면 동적 술어는 동적 동사를 말한다. 정적 술어는 정적 동사와 형용사, 명사 술어를 가리킨다.

〈그림1〉 술어의 종류



## 2.2 문말에서의 「夕」의 의미와 용법

### 2.2.1 술어의 종류와 시제

일본어에서 어떤 사항이 발화시 이전 즉 과거에 이미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문말 술어에 접속한 「夕」나 시간의 명사, 부사를 통해서이다. 특히, 문말 술어에 접속한 「夕」는 과거를 나타내는 필수 요소이다.

(4) 「トットちゃんは、昨日、とてもがっかりしてしまった」

(窓際トットちゃん, p.64)

(4)는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4)에서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 「昨日、がっかりしてしまう」처럼 말한다면 적격문이 될 수 없다. 반드시 (4)와 같이 「がっかりしてしまった」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4)는 시간의 명사 「昨日」가 없어도 과거를 나타낸다. 즉 「昨日」와 같은 시간의 명사나 부사는 어떤 사항이 일어난 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夕」는 과거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夕」가 정적 술어와 동적 술어에 접속하여 과거의 사항을 나타내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2.2.1.1 정적 술어



「夕」가 정적 술어에 접속하였을 때의 의미와 용법을 예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첫째로, 명사술어의 경우이다.

- (5) その時、車椅子に付けられたブザーが三回鳴ったのである。心にしみ  
るような澄んだ音色だった。 (中3年, p.16)
- (6) 現代においてはことばを贈り物にする思想は、我々の中に自覺的には  
余りないと思われるが、平安時代あたりには、言葉は時に最高の贈り  
物だった。 (高1, p.11)
- (7) 激震地は東京、神奈川、千葉、埼玉、静岡、山梨、茨城の一府六県に  
及び、微震地域を加えると、九州、北海道をのぞく本州と四国のほぼ  
全域にわたる大規模な地震であった。 (関東大震災, p.34)

(8) 帰宅すると既に夕食の仕度ができていた。歩きまわって空腹であろうとのトセの配慮だった。 (塩狩峠, p.28)

(9) カントについては何も知らなかったし、哲学というものについても、まったく無知であった。 (高2, p.7)

(5)~(9)의 「音色だ」「贈り物だ」「地震である」「配慮だ」「無知である」는 명사술어이다. 명사 술어에 「夕」가 접속하여 (5)~(7)은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8)(9)는 과거 어느 시점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 형용사 술어의 경우이다.

(10) はだして帰らねばならないだろうことは、歩いてきた道の遠さと考えあわせて、草履の切れかけたものの気持ちはよけい惨めだった。

(二十四の瞳, p.51)

(11) ユダヤ民族が二千年前に祖国を追われたとき、人種的特徴は今のアラブとほとんど同じだった。 (中3年, p.161)

(12) その日は、日が落ちても、むしむしと暑かった。 (塩狩峠, p.92)

(13) 毎日雨が降っているせいでふとんが湿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が、のどが痛く体もだるかった。 (塩狩峠, p.32)

(14) 信夫に年下の友達をかばう度量のあることが嬉しかった。

(塩狩峠, p.16)

(10)~(14)의 술어 「惨めだ」「同じだ」「暑い」「だるい」「嬉しい」는 형용사이다. 형용사에 「夕」가 접속하여 (10)은 과거의 사람의 기분을 나타내고 (11)은 과거의 인종적 특징을 말하고 있다. (12)는

과거의 기후 상태를, (13)은 과거의 몸 상태를, (14)는 과거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형용사에 「タ」가 접속하였을 때도 명사술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느 시점의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로, 정적 동사의 경우이다.

(15) 昔は名付け親というのがあった。 (高1, p.124)

(16) カタカナを書く子、絵を描く子、本を読んでいる子、中には、体操をしている子もい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45)

(17) 久しく泳いだこともない私であったが、思ったより簡単に相手を救い出すことができた。 (中3年, p.140)

(18) レコードも安く買えた。 (ノルウェイの森 上, p.68)

(15)~(18)의 「ある」 「いる」 「できる」 「買える」는 정적 동사이다. 정적 동사에 「タ」가 접속하였을 때도 과거 어느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タ」는 정적 술어에 접속하여 사람이나 사물의 과거 어느 시점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문맥이나 시간의 부사 및 명사를 통해 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 「この二ヶ月寂しかったよ」とぼくは言った。

(ノルウェイの森 下, p.203)

(20) トットちゃんにとって、この一年は、本当に充実していて、毎朝が待ちきれない一年だ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 57)

(21) 「あなたこれでもう三週間も音信不通だったのよ。どこにいて何し

てるのよ」

(ノルウェイの森 下, p.224)

(22) このごろ、元氣のない父の姿を見るだけでも信夫は心配だった。

(塩狩峠, p.115)

(19)~(22)의 「寂しい」「一年だ」「音信不通だ」「心配だ」는 정적술어이다. 그리고 「この二ヶ月」「この一年」「三週間」「このごろ」는 순간이 아닌 시간의 폭을 갖고 있는 표현이다.

앞에서 정적술어에 「夕」가 접속하였을 경우 과거 어느 시점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19)~(22)는 시간의 폭을 갖고 있는 「この二ヶ月, この一年, 三週間, このごろ」의 영향으로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夕」가 시간의 폭을 갖고 있는 표현과 함께 쓰여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ル」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

鈴木<sup>9)</sup>는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23) a 키のうからここにあるよ。

b 키のうからここにあったよ。

(23a)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23b)는 어제라는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부터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고 있다.

---

9) 鈴木重幸(1972), 『文法と文法指導』, むぎ書房, p.270.

寺村도 다음과 같은 예<sup>10)</sup>를 통해

(24) a この一週間むしあつい。

b この一週間むしあつかった。

(24 a)는 무더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을 표현한 것이고 (24 b)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발화시 현재에서는 분명히 지나간 과거의 상태라고 보고 있다.

요컨대 「ル」는 현재도 존재하며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タ」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나버린 과거에 중점을 두어 과거 어느 시점에서 과거 어느 시점까지 지속되었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2.2.1.2 동적 술어

2.2.1.1에서는 정적술어에 「タ」가 접속하여 과거의 상태 및 과거의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동적술어에 「タ」가 접속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25) トットちゃんは、昨日、生まれて初めて、お金をひろ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162)

(26) 昨年、初めて新幹線に乗った。

(小5年, p.50)

(27) おじいちゃんの代わりみたいに、あの後、半年たって、恭の弟が生まれた。

(小5年 上, p.60)

---

10) 寺村秀夫(1984), p.324.

(28) その年、僕は百十二編の小説を読んだ。 (星星の悲しみ, p.9)

(29) 明治四十五年七月三十日明治天皇の崩御にともなって、皇太子嘉仁親王が大正天皇として即位した。 (関東大震災, p.6)

(25)~(29)의 「ひろう」「乗る」「生まれる」「読む」「即位する」는 동적 술어이다. 이 동적술어에 「タ」가 접속하여 과거 어느 특정시점에 동작이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5)~(29)의 「昨日, 昨年, あの後、半年たって, その年, 明治四十五年七月三十日」와 같은 시간의 명사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동작의 성립시점이 과거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25)~(29)의 예를 통하여 동적 술어에 「タ」가 접속하여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29)와는 다른 측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30) 「ご隠居さま」

六さんはトセのことをそう呼んだ。 (塩狩峠, p.7)

(31) 東由多加は劇団東京キッドブラザースの作・演出をしていたころ、劇場関係者、新聞記者、演劇評論家などの外部の関係者のみならず、役者やスタッフなど周囲のすべてのひとと衝突した。普通の人だったら諍いさかいを避けるために目を瞑つむることに目を瞑れず、口にしたら関係が壊れるとわかっていることを問いただし、相手が沈黙したり反論したりしようものなら声を荒らげ、時には殴りかかった。 (生, p.21)

(32) 泰明ちゃんは、トットちゃんより、一歳、年上だったけど、いつもずっと大きい子のように話し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96)

- (33) 病気がちで、神経質だった私を、母は夏休みになると、時々、朝早く連れ出して、この丘に登った。 (高1, p.2)
- (34) 彼は人見知りだったが、私にだけは平気で、そばに誰もいないとよく口をきいた。 (中3年, p.116)
- (35) 彼は信夫の死後一ヶ月というもの、毎朝一里余の道を信夫の墓地まで日参した。 (塩狩峠, p.369)

(30)~(35)의 「呼ぶ」「衝突する」「話す」「登る」「きく」「日参する」도 동적 술어이다. (30)~(35)의 동적 술어에 접속한 「夕」는 일회적인 과거의 동작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30)에서는 「トセ」라는 인물을 「ご隠居さま」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이다. (31)은 「劇団東京キッドブラザースの作・演出をしていたころ」라는 과거 특정 기간의 습관적인 행동을, (32)은 큰 아이처럼 말하는 습관을, (33)도 여름 방학마다 하던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34)(35)는 특정 인물의 습관이 드러나 있다. (32)~(35)처럼 「いつも」「時々」「よく」「毎朝」 등의 반복을 나타내는 수식어와 같이 쓰이면 ‘과거의 습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다.<sup>11)</sup>

## 2.2.2 술어의 종류와 상

2.2.1에서 정적 술어와 동적 술어에 접속한 「夕」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시제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 명사 술어 어느 것에나 존재하는

11) 鈴木重幸(1996),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 『形態論・序説』, むぎ書房, p.153.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은 시제와 달리 동적 술어에만 존재한다. 다음의 (36)~(40)의 술어는 모두 정적 술어이다.

- (36) 変わらないことは苦痛だったが、変わることは恐怖だった。  
(生, p.10)
- (37) しかし、たしかに遺言を書き残した甲斐はあった。(塩狩峠, p.143)
- (38) 「今日は夕方から調子がよかった」 (生, p.93)
- (39) 泰明ちゃんのことで、トモエのみんなは、ずっとかなしか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261)
- (40) 実際にまたいつでも退部できた。 (高2, p.4)

(36)~(40)의 「恐怖だ」「ある」「よい」「かなしい」「できる」와 같은 정적 술어에는 의미적으로 시작 및 종결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8)(39)의 「よかった, かなしかった」는 현재도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夕方から」와 같은 시간 표현과 「ずっと」와 같은 부사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정적 술어에 접속한 「夕」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나간 과거에 중점을 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태는 아니다. 즉 정적 술어에는 상의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적 술어를 중심으로 상의 측면을 살펴보겠다.

### 2.2.2.1 동적 술어

동적 술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어의 동작이나 변화를 중

시하는 동적 동사를 가리킨다.

동적 술어에 접속한 「タ」가

(41) あの夏の夜、千代と布団にもぐり込んで、いろいろな話をした。

(小 6年, p.5)

(42) 僕は毎日図書館に通った。そしていつも同じ場所に坐った。

(星星の悲しみ, p.16)

(41)(42)처럼 과거의 일회적인 동작이나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것을 2.2.1.2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똑같은 동적 술어이지만 (41)(42)와는 용법의 차이가 있다.

(43) 「うわあ!」人々の感激の声。カメラのシャッターを押す音。そして二分後、真っ赤に燃えた太陽が大きな顔を出し、今まで暗かった空が一転して明るい空と化した。

(中3年, p.41)

(44) ビクビクしながら、やっと仁王様の見える、お寺の入り口に、たどりつい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103)

(45) トットちゃんにも、やっと、『海のものど山のもの』が、なんだかわか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51)

(46) 「あと二歩だから、二歩! そう、一歩! 着いた!」

(生, p.177)

(47) 「もう百何十もの小説を読んだぞ」

(星星の悲しみ, p.65)

(43)~(47)의 동적 술어 「化する」「たどりつく」「わかる」「着く」「読む」에 「タ」가 접속하여 발화 순간에 동작이 실현된 단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과거의 일회적인 동작이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습관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43)의 「化した」는 어둠이 걷히고 「明るい空」 즉 일출 장면이 눈앞에서 완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4)(45)는 「やっと」라는 부사를 통해 현재 「たどりつく」「わかる」의 상황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46)도 눈앞에서 「着く」의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은 「もう」라는 부사가 백 십여 편의 소설을 읽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아래의 예는 (43)~(47)의 예와 또 다른 면이 있다.

(48) そのうちに忘れたように雨がやんだ. (高1, p.6)

(49) 「でも、つい最近、最近といっても二年ほど前、私はとうとうそれが分かったのよ」 (春の夢, p.195)

(50) 明治時代以来、日本語は漢字仮名交じり文で書き表すのが一般的になった. (中3年, p.173)

(48)~(50)의 「やんだ」「分かった」「なった」는 발화 순간에 그 동작이 완료된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48)은 비가 그치고 결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49)는 「二年ほど前」에 「わかる」의 동작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50)은 「明治時代以来」부터 표기법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적 술어에 접속한 「タ」가 실현된 동작이나 변화의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문말의 동적 술어에 「タ」가 접속하였을 때 그것이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는지 완료를 나타내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寺村는 문맥과 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을 통해 과거와 완료를 구분하고 있다.<sup>12)</sup>

(51) 昨日、昼御飯を食べた?

— いや、食べなかった。

\*食べていない／食べない

(52) もう昼御飯を食べた?

— いや、まだ食べていない／食べない。 (寺村 1984 : 321~322)

(51)의 경우는 「昨日、昼御飯を食べた?」가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답이 「—しなかった」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52)의 「もう昼御飯を食べた?」는 완료의 표현이므로 대답이 「—ていない /—しない」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대답으로도 「—ていない /—しない」의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료 여부를 묻는 표현에 대한 대답으로 「—しなかった」의 형태는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의 대답을 통해 과거인지 완료인지 구분이 되는 것이다.

#### 2.2.2.2 상의 「タ」와 「テイル」와의 유사성

2.2.2.1에서 동적 술어에 접속한 「タ」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テイル」에도 완료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タ」와 「テイル」의 완료의 용법을 살펴 보겠다.

---

12) 寺村秀夫(1984), pp.120~122.

(53) 花子さんが退職するって話、もう聞いた?

— ううん、まだ聞いてないわ。

(53) a 花子さんが退職するって話、もう聞いている?

— ううん、まだ聞いてないわ。 (工藤 1995 : 142)

(53)의 「聞いた?」는 동작의 완료를 묻는 표현이다. 이 (53)은 (53 a)처럼 「聞いている?」로 바꾸어도 적격문이 된다. 이것을 보면 「タ」와 「テイル」가 ‘완료’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54) その時は、もう、都には鬼火の噂もなくなっているであろう。

(工藤 1995 : 129)

(55) この本が出版される頃には、研究者たちはみな原稿で読んでしまっ  
ているさ。 (金水 2000 : 38)

그러나, 「テイル」의 완료 용법은 (54)(55)처럼 완료의 상황이 미래일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タ」는 발화시 현재에 완료된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쓰일 수 없다.

### 2.2.3 서법의 「タ」

「タ」에는 발화시점 이전에 성립한 상태나 동적 사항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시제와 상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

---

13) 工藤真由美(1995),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 ひつじ書房.  
p p. 142~145

는 용법이 있다. 화자의 어떤 사항에 대한 심적 상태를 증시하는 용법이다. 여기에서는 「夕」의 시제와 상의 측면을 배제하고 「夕」를 서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2.3.3.1 실현에 대한 가상

(56) もしあの時なぐられずに終わったら、自分が屋根から落とされたということは、単なるひとつの思い出でしかなかたであろう。

(塩狩峠, p.140)

(57) もし、きまった人がいるかと尋ねられたのではなく、好きな人がいるかと尋ねられたのであれば、信夫はためらわずにうなずいたかもしれなかった。

(塩狩峠, p.237)

(58) もしできることなら、札幌一の名医にふじ子を診てもらいたかった。

(塩狩峠, p.257)

(59) もしそうだとすれば僕にとってはその方が有難かった。

(ノルウェイの森 下, p.80)

(56)~(59)의 예들은 「(もし) —たら、なら、ば」와 같이, 가정을 나타내는 절이 선행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용법은 (56)의 경우, 실제로 매를 맞았고 지붕에서 떨어진 사건은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이 되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なるひとつの思い出でしかなかたであろう」라는 있을 수 있는 과거의 사항을 가상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56)~(59)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용법은 (56)처럼 「ダロウ」나 (57)처럼 「カモシレナイ」 등의

추량 표현과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58)(59)처럼 추량 표현이 없으면 강한 확신의 표현이 된다.<sup>14)</sup>

### 2.3.3.2 확인

- (60) 「<sup>うおしん</sup>「『魚進』の息子さん、綾子と同級生だったわね。このごろ、もう一人前にお店を手伝っているのよ。」(小6年 上, p.13)
- (61) 「今日は何日でしたっけ?」 (生, p.12)
- (62) それには答えず、あたりをみまわしながら、ミサ子は、  
「先生が怪我をしたところ、ここらへんでしたかしらん?」  
なつかしそうな目をしていった。 (二十四の瞳, p.190)
- (63) 「ジム・モリソンの歌にたしかそういうのあったわよね」  
(ノルウェイの森 下, p.44)
- (64) 「住道いうたら、確か阪奈道路を真っ直ぐ行って、赤井の交差点を過ぎたあたりでしたなア」 (春の夢, p.131)

(60)의 「同級生だった」는 생선 가게 아들이 자신의 딸과 동급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다. (61)의 「何日でした」는 이미 인식하고 있던 날짜를 잊었거나 확실히 하기 위해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62)~(64)의 예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묻고 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거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잊어버렸다가 발화시에 떠올라서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용법이다. 주로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적 술어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

14) 寺村秀夫(1984), pp.335~336.

### 2.2.3.3 기대의 실현

(65) 「あった! あった!

昨日、トットちゃんが、ちゃんと置いといた、目じるしの石が、ちゃんと、そのままだ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 166)

(66) 「あら、ここにいたの?」

信夫を見て、ふじ子はおどろいた。 (塩狩峠, p. 86)

(65)는 표식이 되는 돌을 찾고 있는데 기대한대로 그 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기쁨이 「あった!あった!」로 표출된 것이다. (66)도 뜻밖의 장소에서 찾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いた」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면 「ある」「いる」의 형태도 가능하지만 「夕」에 의해 찾던 것을 기대한대로 찾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용법은 「ある」「いる」 등의 정적 술어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적 술어도 나타난다.

(67) 「来た! 来た!」(教室になる電車が運ばれてきた時)

がやがやいう声で、トットちゃんは、飛び起きて、校庭から門の外のところまで走ってい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 82)

(67)의 「来る」는 동적 술어이다. 이것도 교실로 사용할 기차의 도착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기대하던 대로 기차가 도착했을 때 「来た! 来た!」의 형태로 ‘기대의 실현’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기대의 실현’의 용법은 「夕」가 정적 술어나 동적 술어에 접속하여 무언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을 때이거나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쓰이고 있다.

#### 2.3.3.4 명령

(68) 「なんじゃあ、おなご先生がせっかくおいでたんだから、笑うてむかえんならんに、みんなはでに泣くじゃないか。さ、どいた、どいた。おなご先生、早く中へお入りなさい。」

しかしだれひとり動こうとはせず、しくしくつづけた。

(二十四の瞳, p.84)

(69) そういつて、ハンカチーフを目にあてるのを見ると、マスノはまぜかえすような調子で、

「なーにをマッちゃんがまた、酒ものまんうちにひとりでくだまいてるの。やめた、やめたそんなくち。先生の前でいうこっちゃないわ。昔にかえって!」

(二十四の瞳, p.207)

(70) もうおそいよ。はやくかえった、かえった。 (砂川 1986 : 20)

(68)~(70)의 「どいた、どいた」「やめた、やめた」「かえった、かえった」는 일종의 명령 표현이다. 상대방에게 바로 지금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긴박성이 느껴지는 용법이다. 이러한 「どいた、どいた」「やめた、やめた」「かえった、かえった」와 같은 명령 표현과 다른 명령 표현과의 차이점을 高橋(1985)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sup>15)</sup>

(71) a あしたいけ!(○)

b あしたいきなさい!(○)

---

15) 高橋太郎(1985), p.217.

- c あした いってください!(○)
- d お前は、あした いく!(○)
- e あした いくんだぞ!(○)
- f あした いった!(×)

(71 a ~71 e)처럼 다른 명령 표현은 「あした」와 같은 현재에서 경과한 시간 표현과 같이 쓰여도 상관없이 성립한다. 그러나 (71 f)의 경우처럼 「夕」의 이 용법에는 바로 지금 해야한다는 긴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あした」라는 표현과 같이 쓰이면 비문이 되고 있다.

### 2.3.3.5 화자의 현재의 감정 및 감각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 (72) 「もう 飽きたよ」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144)
  - (73) 「困ったなあ、ぼくにはサッパリわからないよ」 (塩狩峠, p.301)
  - (74) 「なるほどね、これはまいった」 (塩狩峠, p.338)
  - (75) 「よかった。下がったね」 わたしはふたたびコップにミネラルウォーターを注いで、東の口に持っていた。 (生, p.17)
  - (76) 「ああ、疲れた。もうだめだ!」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116)
  - (77) 「腹が減った」  
それが哲之の口から出たはじめての言葉だった。 (春の夢, p.50)
  - (78) 「喉が乾いたんか?」  
哲之は声を忍ばせてキンに話しかけた。 (春の夢, p.72)

(72)~(78)의 「飽きた」 「困った」 「まいった」 「よかった」는 말하는 사람의 발화 순간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미 지나버린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정이지  
만 「夕」로 나타나 있다.

(76)~(78)의 「疲れた」「腹が減った」「乾いた」는 발화 순간의 신  
체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말에서 「夕」의 의미 및 용법과 술어와의  
관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문말에서의 「夕」의 의미 및 용법

문법범주	夕의 의미와 용법	술어의 종류
시제	과거의 상태	정적술어
	과거의 지속된 상태	정적술어
	과거의 동작	동적술어
	과거의 습관	동적술어
상	동작의 완료	동적술어
	결과의 상태	동적술어
서법	실현에 대한 가상	정적/동적술어
	확인	정적/동적술어
	기대의 실현	정적/동적술어
	명령	동적술어
	화자의 현재의 감정 및 감각	정적/동적술어

### 2.3 연체수식절의 「夕」의 의미와 용법

2.2에서는 단문과 주절에 접속한 「夕」의 의미와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연체수식절의 「夕」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체수식절의 「夕」와 문말의 「夕」는 의미와 용법을 달리한다. 우선, 연체수식절의 「夕」는 서법의 어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술어가 아닌 체언을 수식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高橋(1973)는 연체수식절에서의 「ル」와 「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6)</sup>

連体的な用法における《する↔した》の対立は、単に《現在・未来↔過去》というテンス的な対立だけでなく、《進行↔状態》というアスペクト的な対立の面がつよくあらわれ、また、ときに共通の状態性をあらわしめて、終止的な用法における対立とかなりことなる

寺村(1984)도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sup>17)</sup>

従属節内，特に連体節では，テンス的側面は主節のテンスに包み込まれてしまい、アスペクト的側面だけが表面に現れることが多い。

그러나, 丹羽(2000)는 시제와 상의 대립이 함께 성립한다고 본

16) 高橋太郎(1994), 「動詞の連体形「する」「した」についての一考察」『動詞の研究』, むぎ書房, pp.59~60.

17) 寺村秀夫(1984), p.195.

다.18)

連体節のタ形と基本形は，基本時との關係においてテンス上の対立をなすとともに，主名詞の履歴(属性)という面から見ると，既実現か未実現かつまり，完了か未完了かというアスペクト上の対立をもなすのである。

(79) a 洗濯した服をそこに干した。

b 洗濯する服をそこに置いた。 (丹羽, 2000 : 60)

위의 예 (79 a)에서 「洗濯した」는 「洗濯」의 실현이 과거라는 것, (79 b)의 「洗濯する」는 「洗濯」의 실현이 주절시(主節時) 이후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피수식 명사인 「服」에서 보면 (79 a)의 「洗濯した」는 「服」의 세탁이 이미 이루어졌고, (79 b)의 「洗濯する」는 세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체수식절에서 「タ」는 시제적인 측면보다 상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듯하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시제와 상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 2.3.1 술어의 종류와 시제

문말에서는 항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タ」는 발화시 이전인 과거를 나타낸다. 그러나 연체수식절에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주절 사태가 나타내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두 가

---

18) 丹羽哲也(2000), 「連体修飾節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言語』 (30-13), 大修館書店, pp.56~61.

지 모두 존재한다.

### 2.3.1.1 정적 술어

(80) その結果、仲良し遠足のとき兄弟学級だった一年一組の子供たちと、月・水・金曜日の昼休みに、一緒に遊ぶことになりました。

(小6年 上, p.29)

(81) 幼い頃から祭の好きだった弟の発案らしく趣向がこらされていて、縁日にみられる露店が連なり、仮設舞台ではお囃子連中が、笛、太鼓、鉦を鳴らしていた。

(冷い夏、熱い夏、 p.39)

(82) 彼がサッカー部に入った動機は、弱かった体を鍛えた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

(中3年, p.104)

(83) 和語は、もともと日本にあった言葉です。

(小5年 上, p.34)

(84) 信夫がそう思った時、近くにいた副級長の太竹が大声でいった。

(塩狩峠, p.89)

(80)~(84)는 연체수식절에서 「兄弟学級だ」、「好きだ」、「弱い」、「ある」、「いる」처럼 정적 술어에 「タ」가 접속한 예이다. 이 경우에 (80)은 1학년 1반과 「兄弟学級」의 관계는 소풍갔을 때였다는 것이다. (81)은 「幼い頃から」를 통해 축제를 좋아하는 것이 과거부터라는 것을 말한다. (82)는 축구부에 들어오기 전 즉 과거에는 몸이 약한 상태였음을 나타낸다. (83)은 「もともと」라는 부사를 통해 과거임을 알 수 있다. (84)는 과거 어느 시점에 太竹가 같이 있었던 상태였음을 말한다.

문말의 정적술어에 「タ」가 접속하여 과거의 상태 및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연체수식절에서

도 정적 술어에 「夕」가 접속하여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

### 2.3.1.2 동적 술어

- (85) 哲之はその意味をすぐに悟って、さっき借りた金を中沢の掌に乗せた。 (春の夢, p.141)
- (86) しかし、前に挙げた言い方は、かぎられた地方の人にしか通じません。 (小4年 下, p.42)
- (87) 二十歳の初秋にうけた結核の手術で辛うじて死を免れた生命を、航空機事故などで、失いたくはない, と思った。(冷い夏、熱い夏、 p.5)
- (88) ウェゲナーが出したいくつかの仮説は、どれも大陸を動かせるような大きな力ではなく、みな消えていった。 (小5年 上, p.43)
- (89) 哲之は、自分の見た夢を磯貝に話して聞かせた。 (春の夢, p.115)

(85)~(89)에서 연체수식절의 술어 「借りる」 「挙げる」 「うける」 「出す」 「見る」는 동적 술어이다.

(85)~(87)은 「さっき、前に、二十歳の初秋に」와 같은 시간 표현과 함께 쓰여 과거에 일어난 동작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88)(89)은 구체적으로 시간의 표현이 나타나있지 않지만 문맥의 정황으로 과거의 동작임을 느끼게 한다. (88)에서 「みな消えていった」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仮説を出す」의 동작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거의 동작인 것이다.

문말술어에서와 같이 연체수식절에서도 동적 술어에 「夕」가 접속하면 과거 어느 시점의 동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2.3.2 술어의 종류와 상

문말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체수식절에서도 움직임과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정적 술어에 접속한 「夕」는 상의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적 술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3.2.1 동적 술어

(90) やっと思いついた嘘を、家に帰るなり、トットちゃんは、ママに言った。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130)

(91) そして、やっと手を放した田中に磯貝は説明した。 (春の夢, p.57)

(92) 「手術が終わりました。執刀した先生から御説明があります」 (冷い夏、熱い夏, p.47)

(93) 一目見ただけで、もう興奮したトットちゃんは、小さな夜店のひとつひとつに頭をつっこんだ。 (窓際のトットちゃん, p.123)

(90)~(93)의 연체수식절의 「思いつく」「放す」「執刀する」「興奮する」는 동적 술어이다. 이 동적 술어에 「夕」가 접속하여 (90)은 거짓말을 생각해내는 동작이 바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91)은 「やっと」를 통해 「放す」의 동작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92)는 수술하는 동작을 완료했음을 나타낸다. (93)은 발화시에 흥분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연체수식절의 동적 술어에 「夕」가 접속한 경우 동작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94) 実際は四つに折った新聞紙を落とすよりも小さな音しか建てていなかった。  
(春の夢, p.304)

(94) a 新聞紙が四つに折ってある。

(95) それでも用意した小さなろうそくを二十本立て、マッチで火をつけカーテンを閉めて電気を消すと、なんとか誕生日らしくなった。

(ノルウェイの森 上, p.71)

(95) a 小さなろうそくが用意してある。

(94)(95)의 「折る」, 「用意する」는 동적 술어이다. 여기서 (94)는 신문지가 접혀진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95)는 양초를 준비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94)(95)의 「折った」, 「用意した」는 문말의 위치에서는 (94 a)(95 a)처럼 「テアル」의 형태가 된다.



(96) がら空きのバスの席に坐った僕は、今度は窓越しに、バス会社の制服を着て制帽をかぶった青年の顔を近くで見つめた。

(星星の悲しみ, p.156)

(96) a 青年は制帽をかぶっている。

(97) 五日前から始まった新学期の講義に一度も出席していなかった。

(春の夢, p.11)

(97) a 新学期が始まっている。

(98) 足元の、新聞紙で出来たボールを拾い、老人の一人が、

「このボールでガラスが割れるかいな。なア、テッチン」

と言った。

(春の夢, p.305)

(98) a ボールは新聞紙で出来ている。

(96)~(98)의 「かぶる」, 「始まる」, 「出来る」도 동적 술어이다. 이 경우 (96)의 「かぶった」도 모자를 쓰는 동작 이후에 쓰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97)의 「始まった」는 신학기가 5일 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시작된 상태를 나타내며 (98)의 「出来た」는 공이 신문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96)~(98)의 술어는 (94)(95)과는 달리, 문말에서는 (96 a ~98 a)처럼 「テイル」의 형태가 된다.

(94)~(98)의 예처럼 동적 술어에 「タ」가 접속하여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다.

(99) 警官は制帽を脱ぐと、かなり薄くなった頭髪を両の掌で撫で整えながら言った。 (春の夢, p.75)

(100) 貞行は、めっきり娘らしくなった待子を見て微笑した。

(塩狩峠, p.137)

(101) すっかりにぎやかになった銀座や浅草をぶらついたり、いろいろとつき合ってもらってありがとう。(塩狩峠, p.212)

(102) 開け放しになった窓からラジオの音が聞こえる。

(ノルウェイの森 上, p.23)

(99)~(102)의 연체수식절을 보면 「~く(~に)なる」에 「タ」가 접속한 형태로 되어 있다. 「~く(~に)なる」는 원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99)는 많던 머리카락이 「薄くなった」의 상태로 변화하여 그 결과가 남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00)은 待子が 「娘らしくなった」의 상태로 변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01)은 銀座의 변화된 결과를 나타내고 (102)는 창이 「開け放しになった」의 상태

인 채 그대로임을 나타내고 있다.

(99)~(102)처럼 「~く(~に)なる」에 「タ」가 접속한 형태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sup>19)</sup>

### 2.3.3 단순한 상태

연체수식절에서 「タ」가 시제와 상의 측면을 가지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시제와 상의 측면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살펴 보겠다.

(103) 背が高く少し太った、氣のよさそうな外人のおじいさんと、ほっそりして、優しそうなおばあさんを見かけました。 (中3年, p.43)

(103) a 前より太ったおじいさん

(103)은 동작의 과정의 측면은 사라져버리고 상태의 측면만 부각되어 있다. 즉 「太った」는 현재 보이는 단순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103 a)의 「太った」는 「太っていない」의 단계에서 「太った」의 단계로 변화했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서 상의 측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04) 私たちの社会は、今後さらに科学技術を発展させ、ますます多くのすぐれた物を生み出していこう。 (小5年 上, p.108)

(105) ありふれた、何とも下手くそな近づきだなど、哲之は喋りながら自己嫌悪に陥っていた。 (春の夢, p.13)

---

19) 高橋太郎(1994), p.78

- (106) 草間はがっしりした体のあちこちを掌で叩いて、胸を張った。  
 (星星の悲しみ, p.38)
- (107) 「へび、長すぎる」などという、しゃれた文句が出てくる前に、普通の人なら、まず嫌悪感が先に立ってしまう。 (高1, p.83)
- (108) 死人が小説を書けるはずなどなかったから、僕が捜し出そうとしていたことは馬鹿げたお遊びに近かった。 (星星の悲しみ, p.36)

(104)~(108)의 「すぐれる」, 「ありふれる」, 「がっしりする」, 「しゃれる」, 「馬鹿げる」는 (103)의 「太る」와는 달리 움직임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형용사적동사<sup>20)</sup>이다. 이와 같은 동사는 문말에서는 항상 「テイル」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연체수식절에서는 「すぐれた, ありふれた, がっかりした, しゃれた, ばかげた」와 같은 「タ」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각각 피수식 명사 「物, 近づき, 体, 文句, お遊び」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시체의 측면도 상의 측면도 나타나 있지 않는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20) 寺村秀夫(1984), p.142.

### Ⅲ. 결 론

일본어의 문말 또는 주절말에 접속하는 「夕」와 연체수식절에서 「夕」의 의미와 용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夕」의 의미와 용법은 선행하는 술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술어를 크게 동적 술어와 정적 술어로 나누어서 문말과 연체수식절에서 「夕」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문말에서는 시제와 상 그리고 서법의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1.1 문말에서 시제의 「夕」는 정적 술어의 경우, 과거 어느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간 부사나 명사, 문맥 등을 통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동적 술어에 접속한 「夕」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과거에 반복적으로 행하던 습관을 나타내었다.

3.1.2 상은 동적 술어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동적 술어에 접속한 「夕」는 동작의 완료와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었다.

3.1.3 서법의 관점에서 문말의 「夕」를 살펴보면, 과거 사항의 실현을 가상한 용법, 확인의 용법, 기대의 실현의 용법, 명령의 용법, 현재의 감정 및 감각을 나타내는 용법 등이 있었다.

3.2 연체수식절에서의 「夕」는 문말과는 달리 서법의 측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체수식절에서는 시제와 상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2.1 연체수식절에서의 시제의 「夕」는 문말과 마찬가지로 정적 술어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고 동적 술어는 과거의 동작을 나타낸다.

3.2.2 연체수식절에서의 「夕」의 상의 측면도 문말과 같이 동적 술어에서만 나타나며 동작의 완료와 그 결과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3.2.3 연체수식절에서의 「夕」에 시제와 상의 측면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법은 문말에서의 「夕」와는 다른 용법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夕」는 선행하는 술어와 문말인가 연체수식절인가에 따라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보였다. 단순히 과거를 나타낼 뿐이라고 여겨지던 「夕」는 그 밖에도 완료, 결과의 상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등의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외국문헌

#### <예문 출전>

小学校 教科書(1993), 国語(4年上~6年下), 光村図書出版(株).

中学校 教科書(1992), 国語(1年~3年), 光村図書出版(株).

高校 教科書(1992), 国語(1年~2年), 明治書院.

壺井栄(1957), 『二十四の瞳』, 新潮社.

三浦綾子(1968), 『塩狩峠』, 新潮社.

吉村昭(1984), 『冷い夏、熱い夏』, 新潮社.

吉村昭(1977), 『関東大震災』, 新潮社.

柳美里(2001), 『生』, 小学館.

黒柳徹子(1984), 『窓際のトットちゃん』, 講談社.

村上春樹(1991), 『ノルウェイの森 上・下』, 講談社.

宮本輝(1988), 『春の夢』, 文春文庫.

宮本輝(1984), 『星星の悲しみ』, 文春文庫.

#### <단행본>

青木三郎 編(2001), 『「た」の言語学』, ひつじ書房.

金水 敏(2000), 「時」 『日本語文法2 時・否定と取立て』, 岩波書店.

金田一春彦 編(1976),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工藤真由美(1995),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 ひつじ書房.

砂川有里子(1986), 『日本語文法 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2 する・した・している』, くろしお出版.

高橋太郎(1985),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国立国語

研究所 82), 秀英出版.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I』, くろしお出版.

町田 健(1989), 『日本語の時制とアスペクト』, アルク.

三原健一(1992), 『時制解釈と統語現象』, 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一改訂版一』, くろしお出版.

### 〈논문〉

井上和子 編(1989), 「テンス・アスペクト」 『日本文法小辞典』, 大修館書店.

尾上圭介(1982), 「現代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日本語学』 (1-2),  
明治書院.

奥田靖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金田一段階」 『日本語研  
究の方法』 松本泰丈 編, むぎ書房.

紙谷栄治(1989), 「テンスとアスペクト」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4 日本語  
の文法・文体 (上)』, 明治書院.

金水敏(1987), 「時制の表現」 『国文法講座6』 山口明穂 編, 明治書院.

工藤真由美(2000), 「述語の意味類型とアスペクト・テンス・ムード」 『言  
語』 (30-13), 大修館書店.

工藤真由美(1998), 「非動的述語のテンス」 『国文学解釈と鑑賞』 (63-1), 至  
文堂.

鈴木重幸(1972), 「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いいきりの述語に使われた場合  
—」 『文法と文法体系』, むぎ書房.

鈴木重幸(1996),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 『形態論・序説』, むぎ書房.

鈴木泰(1993), 「時間表現の変遷」 『言語』 (22-2), 大修館書店.

高橋太郎(1978), 「連体形のもつ統語論的な機能と形態論的な性格の関係」  
『日本語研究の方法』 松本泰丈 編, むぎ書房.

高橋太郎(1994), 「動詞の連体形「する」「した」についての一考察」 『動詞  
の研究』, むぎ書房.

- 高橋太郎(1994), 「形容詞のテンスについて」 『動詞の研究』, むぎ書房.
- 中島孝幸(1995), 「現代日本語の連体修飾節における動詞の形について—ル形・タ形とテイル形・テイタ形—」 『人文論叢』 12号, 三重大学人文部.
- 丹羽哲也(2000), 「連体修飾節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 『言語』 (30-13), 大修館書店.
- 丹羽哲也(1996), 「ル形とタ形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独立文と連体節—」 『人文研究』 (48-10), 大阪市立大学文学部.
- 福田嘉一郎(2000), 「「タ」の研究史と問題点」 『言語』 (30-13), 大修館書店.
- 福田嘉一郎(1999), 「近代語の時の表現—連体述語の場合—」 『国語国文』 (65-5), 京都大学.
- 松村瑞子(1995), 「いわゆる～テイルの交替形としての～タ」 『言語科学』 30号, 九州大学言語文化部言語研究会.
- 牟世鍾(1993), 「発見・思い出しにおけるル形とタ形」 『日本語学』 (12-2), 明治書院
- 森田良幸(2000), 「確実意識のタ」 『言語』 (30-13), 大修館書店.

## 한국문헌

### <한국논문>

- 고명자(2000), 「동사의 테ンス·아스펙트적 의미 고찰 「ル」 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허재석(2000), 「日韓国語의 過去테ンス에 関する 对照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Abstract>

A study on *ta*(夕) in Japanese

Yang Chae-yeol

Graduate Schoo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ung-han

Having been taught that the ending *ta*(夕) on verbs is usually used to express past tense, you are likely to believe that it only shows simple past. However, if we take a closer look, it has more meanings and uses than expected. In this thesis, I delve into these depending on preceding verbs.

The introduction includes grammatical categories encompassing *ta*(夕), and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which has been conducted. The body covers the meanings and uses of *ta*(夕) at the end of a sentence depending on kinds of verbs. Further investigation extends to modifying clauses which are attached to a variety of noun forms.

First, *ta*(夕) at the end of a sentence has various meanings and uses in terms of tense, aspect and mood. If *ta*(夕) expressing past tense at the end of a sentence is attached to a static verb, it indicates a finished state or a continuing condition over a period of time. If *ta*(夕) combines with an action verb, it describes a finished action or a habitual one in the past. When the ending expresses aspect, it is used only along with action verbs to describe completion of an action or an ongoing state.

With regard to mood, *ta*(夕) is used to express such wishes or

assumptions as opposed to an event that already happened, to confirm the event, to describe realization of an expectation, and to indicate imperative mood. Moreover, it is also used to express emotions and senses in the present.

Second, in modifying clauses attached to noun forms, *ta(夕)* is used to show tense and aspect as it is at the end of a sentence.

When it combines with a static verb, it describes a condition in the past, and when it is used along with an action verb, it presents an action which was taken in the past. In the case of aspect, *ta(夕)* adheres only to action verbs and describes completion of an action and a continuing state. However, the ending does not show mood in such clauses.

In conclusion, the ending *ta(夕)* in modifying clauses is not the same as that at the end of a sentence.

